



“술이랑 밥이 부치고 하나님이지”

노숙자의 삶 속으로

노숙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올해로 7년째. 오늘도 전국 4천3백여 명의 노숙자들이 지하철역과 공원 등에서 알뜰에 몸을 내맡긴 채 잠을 청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복합장애인, 알콜중독자 등이 뒤섞인 이들은 '꼬지(앵벌이, 짚팔이, 팽팽이 등 노숙자들의 구걸을 총칭함)와 공공 일용근로직으로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 나가고 있다.

■ 신문지 보다 라면박스가 더 따뜻하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4백여 명의 노숙자들 틈에 끼어 저녁을 먹고 회현역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 20여 명의 노숙자들이 제각각 잠을 청하고 있었다. 바람을 막으려 머리맡에 라면박스를 세워 놓은 사람, 아예 비닐로 온 몸을 휘감은 사람, 계단을 배개 삼아 누운 사람.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우리에게 최모 씨(42)가 자리 한 칸을 내줬다.

신문지를 깔고 어색하게 웅크리고 있는 우리에게 최씨가 말을 걸어왔다. “어디서 왔어?” 조심스럽게도 했지만 추운 날씨 탓에 말이 더듬거려 갔다. “저기...” “중국서 왔어? 조선족이야?” 최씨 말에 잠깐 다 싶어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죽은 듯이 최씨가 깔고 있던 뽕가를 썩 밀어줬다. 라면박스였다. “신문지 보다 이게 더 따뜻해.” 고맙다는 표시로 술을 대접하겠다고 하자 최씨는 흔쾌히 응했다. 소주 몇 잔이 오가자 얼큰하게 술이 오른 최씨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고아였던 최씨. 3살 때부터 길러준 양부모가 죽자 막 노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난은 늘 그대로였다. “돈 많이 벌어서 결혼도 하고 싶었는데...” 예상외로 최씨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말바닥 삶에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

■ 땀겨둥이 24時

(땀겨둥이란 의지하고 지내던 곳에서 맨손으로 쫓겨난 사람들로 노숙자와 비슷한 뜻을 가진 우리말)

■ IMF, 신용불량... 굶주림에 가슴이 시리다

최씨에게서 회현역과 서울역 노숙자들의 생활을 들을 수 있었다. “서울역에서 난장끼는 노숙자들은 노숙하는 것을 ‘난장끼’라고 표현했다) 사람들은 술 마시고 싸움질만 해. 그나마 여기는 잠 잘만 해. 그래도 살 아보겠다고 일 나가는 사람 때문이지.” 이들은 자신들을 노숙자가 아닌 땀겨둥이라고 부른다.

최씨는 회현역 노숙자들의 우두머리 격인 박모(72)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시절 육군 대위를 지내고 외국영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박 할아버지. 그가 노숙자로 내몰린 것은 바로 가정파탄 때문이었다. “저 영감, 큰 아들 죽고 나서 부인과 자주 다투다가 결국 이혼했다는구만. 자식을 학대에 견디다 못해 뛰쳐나온 곳이 회현역이야.”

노숙자 서너 명이 술판에 합류했다. 젊은 노숙자 권모씨(25) 이야기는 가슴을 시리게 했다. 길거리 생활 7년을 맞은 권씨.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 돈이 없어 중학교를 중퇴했지만 지방에서 K자동차회사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학업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97년 IMF는 권씨의 꿈을 송두리 채 꺾어 버렸다.

신용불량자 김모씨(38),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강모씨(46), 2급 신체장애인 서모씨(54), 중국에서 위장결혼을 하고 온 정모씨(47). 이들도 긴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저마다의 사연을 털어냈다.

■ 밥거르면 안돼... 술만 먹다가 죽었거든

한 두 시간 잤을까. 요란한 굉음을 내며 올라가는 지하철 개찰구 샷리 소리에 깨어보니 새벽 4시30분이다. 덮고 있던 신문지가 무겁게 느껴졌다.

일어나자마자 노숙자들이 달려간 곳은 화장실. 세면하기 위해서다. ‘좌장’ 박 할아버지가 세면을 마치자 기다리던 노숙자들이 씻기 시작했다. 씻는다고 보다는 눈곱만 때는 수준이다. 오랜 노숙생활의 찌든 때는 그대로였다. 제일 먼저 최씨가 라면박스와 신문지를 주섬주섬 챙겼다. 오늘도 이들에 의지해 밤을 나아하기 때문이다.

아침 7시. 수원행 전동차에 올랐다. 최씨가 소개시켜준 박 할아버지를 따라 수원역 근처 교회에 아침을 먹으러 가는 길이다. 손톱 밑을 파고든 새까만 때, 지든 때로 전동차 불빛에 반짝거리는 옷깃, 구멍 나고 찢어진 바지, 이곳저곳 아무렇게나 둘러버린 회색빛 머리. 승객들이 노약자석 근처에 모여 있는 우리를 보자 코를 막고 저만큼 물러선다.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박 할아버지는 노숙자들의 하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노숙자들이 주로 아침 6시 서울역에서 무료급식을 먹거나 수원, 성남 야탑역 근처 교회에서 아침을 먹고 곧바로 꼬치를 하러간다고 했다. “점심도 교회에서 무료급식으로 때워. 그리고 각자 흩어져 다시 구걸로 돈을 번 다음, 밤 8시에 서울역에 모여 술판을 벌이거나 자는 게 하루 일과야.”

박 할아버지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잘 먹어야 돼. 조금 말고 해서 밥 먹는 게 제일이야.”

면 안돼. 올 겨울에 젊은 놈 하나가 밥 안 챙겨 먹고 술만 퍼먹다가 결국은 일어 죽었어. 시체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해부용으로 실려 갔지.”

수원 ○교회는 아침을 먹기 위해 찾아온 노숙자들로 붐볐다. 컵라면과 김밥, 얇고 가는 김밥은 단무지와 시금치, 계란만이 속을 채우고 있었다. 서울역, 을지로역, 시청역, 종로공원, 영등포역 등에서 물러온 2백여 노숙자들은 한끼 식사를 위해 하나님을 찾았다.

두 손을 꼭 모으고 연신 ‘아멘’을 외치는 박 할아버지에게 개신교 신자라고 물었다. 박 할아버지는 대뜸 “술이랑 밥이 부치고 하나님이지”라며 김밥을 입속에 우겨 넣었다.

■ 차 부셔진 것만 속상하겠지

교회에서 끼니를 때운 노숙자들과 함께 간 곳은 금정역. ‘꼬지’를 위해서다. 교회와 성당들을 빨리 돌기 위해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8차선 대로를 그냥 가로질렀다. 보기에라도 아찔했다. “위험한 거 알지. 이렇게 다니다 차에 받지면 그냥 죽는 거야. 가족이 없어서 보상도 못 받아. 우리 보다는 자기들 차가 부셔진 것이 더 속상하겠지.” 서씨의 말이 서럽게 들렸다.

이들이 꼬치를 통해 하루에 버는 돈은 고작 4~5천 원. 이나마도 오전 11시까지 여 주변 모든 교회와 성당을 돌아야 벌 수 있다. 교회는 대개 5백~1천 원. 성당은 2백 원. 노숙자들 손에 쥐어졌다. 이들은 이 돈으로 소주를 마신다. 이젠 사회도, 땀겨둥이 자신들도 무감각해진 ‘거리의 삶’. 그렇게 오늘 하루가 다시 시작했다. 언제까지인지조차 모르면서.

글=김철우·이동혁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24일 저녁10시 서울역 지하도. 꿈도 희망도 이들에게는 없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 (주) 행복만선 Tel.02) 720-8489

<중국 4대 불산 성지순례>

1. 관음보살 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5만원
2. 지장보살 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보살 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79만원
4. 문수보살 도량 - 북경 / 오대산 / 운강석굴 69만원
5. 관음도량과 지장도량 순례 8일 125만원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

<나만의 중국 자유여행 - 항공 + 호텔>

1. 금요일에 출발하는 북경 3일 29만원
2. 목요일에 출발하는 북경 4일 34만원
3. 금요일에 출발하는 상해 3일 29만원

<국내 - 제주도 사찰순례>

1. 산사체험과 역사유적 답사 3일 21만원
2. 마라도와 한라산 등반 3일 25만원
3. 마라도와 우도팔경 3일 27만원
 - 제주도 일정은 제주 4대 사찰순례가 포함 되었습니다.

선착순 : 4명 11월 12일 출발 특별 중국 성지 순례 7일 - 파격가 99만원 소주 / 보타산 / 낙가산 / 황산 / 구화산 / 상해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시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써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